



# GFEZ

Webzine 2012.08 Vol.13

GFEZ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 Contents

## 03 Message

-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및 물류중심 도시건설

## 05 Hot Issue

- 日 코에이 테크노시스템(주)과 80억 규모 투자협약
- 광양경제청, 일본 제조업체 투자유치에 박차
- 주한 일본 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
- 울촌 제 I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분양
- 여수엑스포를 투자유치 기회로 삼아
- 전체 경제자유구역청 중 2위 차지
- 물류비 절감! 최적의 수출입환경을 갖춘 광양항으로
- 일본 오사카능률협회 및 기업인들 광양만권에 관심높아
- 광양만권이 글로벌 경제특구로 도약하는데 진력하겠다!

## 10 Invest in GFEZ

- 광양만권의 조선, 제조, 주거, 업무, 관광·레저 등 복합산업기능 하동지구

## 13 Photo News

- GFEZ 주요 포토뉴스

## Gate of Asi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

급성장 하는 동북아 시장에 대응하여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을 육성하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해운 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 인프라,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 상부한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및 물류중심 도시건설



존경하는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인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여러분!

먼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선장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및 물류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광양만권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다는 기쁨과 함께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발전의 큰 틀을 여러분과 함께 꼭 해내야만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여 동안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양만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전임 백옥인 청장님과 최종만 청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북아 물류와 신산업 그리고 관광허브의 초석을 다지며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여 국내 GDP의 약 10%를 생산하는 국가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지난 2004년 개청이후 122개사에 110억불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역주민, 입주기업과 그리고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저는 재임기간 동안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구별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양만권은 유리한 입지조건 등의 강점을 이용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단개발을 계기로 광양만권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무엇보다 올촌 제Ⅰ산단의 분양률이 81%를 넘어서는 등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투자를 희망하는 외지 기업들로부터 입주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산업단지 조기 공급을 위해 올촌 제Ⅱ산단, 세풍산단, 황금산단 등 6개 산단에 대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신속하고 차질없이 개발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주변 여건변화 및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구 조정에 맞추어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방향을 좀 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각 지구별 단위 사업지구와 신규배후단지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여타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특화지역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겠습니다.

사실 국내외 경제 여건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 방위적 대책을 수립하여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적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여건을 분석하여 분야별, 업종별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성과 창출을 위한 전환점을 모색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 진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협약 대상 기업은 반드시 실질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맞춤형 투자유치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중심의 행정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 어려움 외에도 자금난과 인력난, 그리고 매출 부진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광양만권 입주기업이 좀 더 안정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통하여 지역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계약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원 스톱 기업지원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현장민원상담 체제를 운영하여 기업경영 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

하는 등 입주기업인이 행정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산성 있는 직장,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사항이 이뤄진다고 해도 정작 일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로 세워야 일이 바로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프로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일은 성과가 있게 되고 직장은 보람 있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원들 모두가 맡은 직무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직원들의 소양과 전문성을 평가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양양책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발전의 미래는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는 만큼 저를 포함한 전 공직자가 진취적인 실천의지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구역이 미래 신성장의 중심엔진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광양청은 새로이 출항을 합니다. 끝없는 국제 경쟁의 상황에서 시련과 도전이 있겠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日 코에이 테크노시스템(주)과 80억원 규모 투자협약



### 7월 24일 200억원 규모 투자협약에 이어 철강 연관산업 유치 연달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하 광양경제청)의 일본 기업 유치가 잇따르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7월 24일 도쿄에서 철강가공업체인 스가스틸(주)(대표 호시노 요이치)와 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7월 26일에는 후쿠오카에서 표면처리 및 자동차·열차 엔진 재생업체인 코에이 테크노시스템(주)(대표 야스타케 료스 케)과 8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를 방문했던 이희봉 청장 및 관계자들은 기업 맞춤형 투자설명회와 경제인단체 초청 간담회, 타깃기업 면담을 진행했으며, 광양만권의 투자매력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특히 두 차례의 투자 설명회에서는 일본내 철강과 물류관련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해외진출에 높아진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대일본 지진 이후 일본내 제조업체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만권의 주력산업인 철강과 물류 관련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발빠르게 진행됐다.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은 “광양만권은 조강생산능력 세계 4위의 포스코와 국내 2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광양항을 보유한 글로벌 경제특구이다”며, “관련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시 철강과 물류 관련산업이 고도화된 광양만권에 우선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광양만권에 일본의 제조업체 투자유치가 잇따름에 따라, 일본내 인지도 상승과, 향후 첨단 제조업 유치는 물론 현재 개발중인 울춘제2산단 등 6개 산단 분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 광양경제청, 일본 제조업체 투자유치에 박차



### 도쿄 투자설명회 및 MOU체결

일본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하 광양경제청)이 현지 투자설명회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7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지역중견기업인들을 초청해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본 일간공업신문사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잠재 투자기업과 도쿄 지역기업인, 그리고 경제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광양만권의 매력적인 투자환경 홍보, 맞춤형 개별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광양경제청은 철강가공업체인 스가스틸(주)(대표 호시노 요이치)과 울춘 제1산단내 약30,000㎡의 부지에 공장설립 등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부품제조, 제강, 절단 등을 주력으로 하는 일본의 철강 소재산업 유치를 성공함에 따라 향후 광양만권의 주력산업인 철강·신소재 사업 관련 투자와 한일기업간 기술협력, 부품 구매상담 등 실질적인 업무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봉 청장은 “이번 일본기업 투자설명회와 기업상담을 통해 광양만권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일본기업의 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GFEZ의 일본기업 유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지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해외진출과 일본내 엔고, 전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주한 일본 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



### 일본 기업인들 광양만권에 관심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희봉 청장/이하 광양경제청)이 전남도와 공동으로 주한 일본기업인들을 초청해 투자 설명회를 가졌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재팬클럽 다카스기 노부야 부이사장 등 관계자 23명을 초청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비롯한 여수세계박람회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항 그리고 현재 입주해 있는 일본기업을 둘러보는 투자 설명회 행사를 갖고,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일본기업의 투자 성공사례로 꼽히는 여수국가산단의 금호미쓰이화학과 순천의 신광마이크로애크트로닉스사를 방문해서는 한국내 투자·경영 정보를 실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서울재팬클럽은 1997년 설립되어 1,700명의 회원과 법인 359개사를 둔 국내 최대의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으로, 한일간 투자교류와 무역상담, 일본기업 정보 제공 등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희봉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양만권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단, 광양항 등 뛰어난 산업인프라를 보유한 매력적인 경제특구이다”며, “앞으로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일본 기업의 강점인 첨단·부품·소재분야의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경제청에서는 동일본 지진 이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도쿄, 후쿠오카 등 현지 투자유치 설명회와 물류,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타깃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울촌제 I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분양



### 울촌제 I 산업 주변에 형성된 산업인프라 개발로 투자가치 상승 기대

울촌제 I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가 공급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울촌제 I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울촌제 I 산업단지는 저렴한 분양가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단 등 주변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들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 현대스틸산업, 삼우중공업 등이 들어서는 등 77개 기업에, 분양율이 81%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미분양 면적은 총 73필지에 1,253,452㎡이며, 공급가격은 산업시설 용지는 139,226원/㎡, 지원시설 용지는 270,500원/㎡~ 446,500원/㎡ 이다. 산업시설 용지는 공고일 이후 수시 접수 및 입주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하며, 지원시설 용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입찰 신청서 접수기간은 2012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받아, 9월 6일 입찰할 계획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1년여 사이에 이순신대교 건설, 광양~전주·목포간 고속도로 건설, KTX전라선 복선 전철화 등 다양한 유형의 SOC 확충으로 산업·물류 기능의 경쟁력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향상됐다.

또한 울촌제 I 산업단지는 주변에 형성된 산업인프라의 장점과 쾌적한 배후여건, 풍부한 전력과 용수, 완벽하게 구비된 도로 교통망, 풍부한 경험으로 축적된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에 따른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촌제 I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분양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061-760-5420, <http://www.gfez.go.kr>)에 문의하면 된다.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여수엑스포를 투자유치 기회로 삼아



###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글로벌 유력기업인들 방문 잇따라

2012 여수세계박람회(5. 12 ~ 8. 12)를 활용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하 광양경제청)의 투자유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4월 25일 투자유치본부장을 단장으로 기업 유치, 산단개발, 홍보분야 등 3개반, 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여수 EXPO GFZEZ 투자유치단”을 조직해,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초청 기업 안내 및 투자자 상담, 개발지구 현장 시찰, 그리고 외국기업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GFZEZ 투자유치단』은 현재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7개국 외국 및 국내기업인 약 500 여명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투자설명회와 개발현장 시찰, 여수세계박람회 관람 등의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지난 5월 24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6월 23일에는 일본의 오사카능률협회 회장단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박람회장을 관람하는 등 외부 기업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더욱이 지난 6월 13일에는 광양만권내에 1억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한 호주 R 사 회장단이 배우단지 개발현장을 방문하고, 나승병 투자유치본부장을 면담하는 등 외자유치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광양경제청에서는 남은 기간에도 일본, 유럽, 중국 등 광양만권 투자에 관심이 많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과 더불어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체 경제자유구역청 중 2위 차지



### 2010년 성과평가 도입 이후 3년 연속 2위 달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하 광양경제청)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평가에서 3년 연속 2위를 달성했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7월 2일 지식경제부는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2012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을 심의하고,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로 광양만권은 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부족한 사회간접시설과 낮은 지방 재정여건 임에도, 2010년 성과평가 도입 이후 3년 연속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 선발청 : ① 인천청 ② 광양청 ③ 부산·진해청

★ 후발청 : ① 새만금·군산청 ② 대구·경북청 ③ 황해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11년 개발 및 투자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성과를 민간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평가, 종합발표평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희봉 청장은 “올해 성과평가에서는 개발 진행상황과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발굴로, 평가지표별 대응을 철저히 해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내년부터는 선·후발구역간의 평가방식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평가결과 부진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분석하고, 보완해 더 나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고 운영비 7억56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 물류비 절감! 최적의 수출입 환경을 갖춘 광양항으로



### 광주지역 수출입업체 초청 광양항 물류 설명회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하 광양경제청)이 화물 연대 파업에서 벗어나 정상화된 광양항의 물동량 증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7월 5일 광주지역 30여개의 수출입업체 물류업무 담당자들을 광양항으로 초청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광양항의 현황, 각종 인센티브 등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광양항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광양경제청이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력이 이뤄졌으며, 광주지역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절감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광양항과 연결된 도로, 철도, 항만조건 및 각종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 등 최적의 수출입 환경을 갖춘 광양항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현장견학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광주지역 수출입업체들이 더욱 더 광양항을 활용하여 수출입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알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광양항에서는 작년에 208만5천TEU의 컨테이너가 처리되었으며, 올해는 230만TEU의 처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광양항 관계기관에서 공동으로 국내외에서 마케팅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물동량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는 참석한 수출입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여수EXPO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 일본 오사카능률협회 및 기업인들 광양만권에 관심 높아



### 2012 여수엑스포 계기로 외국 기업인들 광양만권 방문 이어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일본 오사카 지역기업들과 수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 오사카능률협회 쇼토쿠 유키오 회장을 비롯한 제조, 금융, 서비스산업 분야 14개 기업 관계자들이, 6월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방문에 투자여건 등을 시찰했다. 24일 여수엑스포를 참관한 이들은, 25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등 현장을 둘러본 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울촌산단 등 광양만권내 외국기업의 투자현황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세부의견을 나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부터 오사카능률협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쇼토쿠 회장은 광양만권을 방문할 때마다 날로 급변하는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 인프라의 정비, 입주기업 공장설립 등 광양만권의 다이나믹한 경제적 변화상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나승병 투자유치본부장은 “한국이 선도적으로 유럽 및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보다 견고한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만큼 일본기업이 광양만권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쇼토쿠 회장도 “일본부품·소재산업분야 기업의 한국 진출로 지속적인 한일간 무역역조 현상을 타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유망한 일본기업이 광양만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한 후, 서울을 거쳐 26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광양만권이 글로벌 경제특구로 도약하는데 진력하겠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4대  
이희봉 청장 취임

새로 취임하는 제4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희봉(사진) 청장은 4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오는 6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광양만권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대장정의 새로운 선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신임 이 청장은 담양 출신으로 광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 학사)를 나와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6년 가까이 공직에 몸 담은 행정통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와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도시지역학 박사 학위를 받은 행정·재정 전문가이기도 하다.

공직생활 동안 내부부 재정경제과,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장, OECD 한국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장, 전라남도 의회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이 청장은 지난애에는 20여 년간의 지방재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영 역사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거버넌스 지방재정'을 출간해 우리나라 재정 현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 재정전문가이기도 하다.

2004년 개청이후 지금까지 세계적 경제특구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재정전문가인 신임 이희봉 청장의 취임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의 투자정책 수립과 투자심사에 많은 경험과 OECD 한국센터에서 국제경제의 흐름을 체득한 풍부한 경험은

앞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물류 중심 도시로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지구별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자질없는 추진”,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 “▲생산성 있는 직장 조성” 등 네가지 중점시책을 밝힐 예정이다.

먼저 올촌 제1산단의 분양율이 81%를 넘어서고 있어 앞으로 예상되는 부족한 산업단지의 조기 공급을 위해, 올촌 제2산단, 세풍산단, 황금산단 등 6개 산단개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검토·보완해 차질없이 개발하고, 또한 각 지구별 단위 사업지구와 신규배후단지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둘째로 유럽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까지 투자여건을 분석해 분야별, 업종별 투자유치 전략을 재수립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 진력하기로 했다. 또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맞춤형 투자유치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입주 기업이 좀 더 안정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원 스톱 기업지원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넷째로 “사람을 바로 세워야 일이 바로 된다”는 모토로 “생산성 있는 직장,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보다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강화를 주문했다.



## 광양만권의 조선, 제조, 주거, 업무, 관광·레저 등 복합산업기능 하동지구



GFEZ 5개 지구 중 하동지구는 2003년 10월 30일 GFEZ로 지정된 이후 하동군 금남면, 금성면 일원의 총면적 12.27km<sup>2</sup>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단지(갈사만조선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두우배후단지, 덕천배후단지)가 광양제철의 생산 기능과 연관된 선박 관련 조선 산업과 제조, 주거, 업무, 관광·레저 등 복합산업기능을 담당할 단지로 조성된다.

### ★ 단계별 추진계획

| 구 분       | 사업기간      | 추진계획                           |
|-----------|-----------|--------------------------------|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 2008~2015 | 5.61km <sup>2</sup> , 15,970억원 |
| 대송산업단지    | 2009~2015 | 1.37km <sup>2</sup> , 2,383억원  |
| 두우배후단지    | 2012~2016 | 2.64km <sup>2</sup> , 1,397억원  |
| 덕천배후단지    | 2012~2016 | 2.65km <sup>2</sup> , 1,429억원  |

※개발단계 및 추진계획은 당초 개발계획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단계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5.61km<sup>2</sup>로 GFEZ 개발에 따른 지역균형개발과 지역편중에 대한 완화역할을 기대하며, 광양항 주변 생산기능 연관산업인 조선소, 조선기자재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송산업단지도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하여 금속,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하게 된다.

그리고 2개의 배후단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되는데, 덕천배후단지는 2.65km<sup>2</sup>로 갈사만 매립지 기능이 본격화되어 산업유치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들어서면 산업단지 지원기능인 주거, 상업, 업무지원 등 생활지원 시설을 위한 단지로 개발된다. 또한, 두우배후단지는 2.64km<sup>2</sup>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로 산업유치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접어들면 경제자유구역 내 중점 관광·레저시설(관람시설, 야영장, 레포츠, 골프장 시설 등)로 개발된다.



※ 위 조감도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하동지구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구분         |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
| 2004.04.30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 완료                                                               |
| 2006.12.15 | 갈사만 매립지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경상남도 → 한국토지공사)                                                   |
| 2007.02.15 |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
| 2007.08.13 | 사업계획서 평가 - 대송산업단지 : "가림" 대송산업개발(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 2007.08.31 | 대송산업단지 개발 투자협정서(MOA) 체결 - 경상남도, 하동군, GFEZ, 대경건설(주), (주)대광종합건설                        |
| 2007.10.18 | 하동지구(대송산단 제외)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
| 2007.12.10 | 하동지구(대송산단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4개단지)<br>"가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안정개발(주)와 7개사 SPC구성) |
| 2007.12.28 | 하동지구(대송산단 제외) 투자협약서(MOU)체결 - 경상남도, 하동군, GFEZ, 안정개발(주)와 7개사                           |
| 2008.01.17 | 대송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 하동군, 민자 → 하동군, 대송산업개발(주)                                           |
| 2008.07.18 | 갈사만 매립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3,174천㎡)                                                       |
| 2008.09.12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하동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
| 2009.03.30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지식경제부)                                                |
| 2009.04.21 | 대송산업단지 단위개발 사업지구 확대기준 평가 통과(지식경제부)                                                   |
| 2009.07.03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지식경제부)                                                   |
| 2009.09.11 | 두우배후단지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
| 2009.11.24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지식경제부)                                                   |
| 2010.03.30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수                                                                   |
| 2010.09.28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대우조선해양(주) 분양계약 체결(20만평)                                                    |
| 2010.11.23 | 대송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수                                                                      |
| 2011.05.02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건립사업 선정(지식경제부)                                               |
| 2011.07.29 | 대송산업단지 집안시설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
| 2012.02.29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한신공업 공사도급계약 체결(책임준공)                                                       |
| 2012.03.20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부지 공사 착수                                                     |
| 2012.05.07 | 갈사만조선산업단지 FE대용역청 체결                                                                  |

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5년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주) 등이 입주해 고부가가치 조선산업, 조선기자재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송산업단지의 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진주 소재의 대경건설(주)과 울산 소재인 (주)대광종합건설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대송산업개발(주)을 선정하여 2007년 8월에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대송산업 단지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배후기능을 가진 산업단지로서의 개발을 위해 기존의 3단계(2020년) 사업을 1단계(2012년) 사업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면적에 대해 확대요구가 있어 기존보다 0.377km<sup>2</sup> 확대한 1.37km<sup>2</sup> 면적으로 2008년 3월에 지식경제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2009년 6월에 확대 승인이 되었고, 7월에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11월 24일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2007년 12월에 세계 굴지의 조선건조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주)을 포함한 8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8년 7월에는 하동군민의 오랜 열망이었던 하동지구 갈사만 매립 사업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08년 9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이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지식경제부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2009년 3월에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되었으며, 2011년 5월에는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으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내 "해양플랜트 종합 시험연구소"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2012년 3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갈사만조선산업단지가 명실상부 조선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기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고, 2010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리고 2011년 7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송산업단지 접안시설이 반영되어 기존 육상 및 바다를 통한 물류이동이 가능해져 물류비용 절감 효과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우배후단지는 2012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모집계획(공모지침) 공고를 실시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2년 하반기에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덕천배후단지는 주거, 상업, 산업연구시설이 조성되어 쾌적한 생활공간의 혁신형 복합거주단지로 선보이게 될 것이다.

하동지구 기반시설인 갈사만 진입도로는 4개 노선 총연장 12.29km와 내부간선도로 2개 노선 9.03km에 사업비 2,597억원으로 2011년까지 국비 514억, 지방비 355억원이 투입되었고, 2012년도분 2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 중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은 2008년 9월 실시설계 착수, 2009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09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은 338억원(국비169, 지방비169)을 투입, 2010년 4월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12년 4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공사착공 예정이며, 갈사만 매립지에서 금남면 진정리에 이르는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공사는 2007년 12월 착공해 오는 2013년 완공 예정이다. 진입도로 4호선은 총 5,050m 중 금남면 대송리에서 대송산업단지를 연결하는 2공구 520m에 대한 공사를 우선 진행하여 대송산업단지의 물류수송을 위한 기반여건을 조기 조성할 계획으로 하반기 보상 및 공사착공 예정이다.

현재 공사 중인 갈사만 진입도로 1, 3호선이 완공되면 도로 폭이 협소하고 노면이 불량한 기존의 군도 17호선을 대체할 수 있어 GFEZ 하동지구의 갈사만 매립지와 남해고속도로의 접근이 용이해져, 물동량의 원활한 이동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하동지구의 관광객 유치로 전국 제1의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FEZ, 日 코에이 테크노시스템(주)과 80억원 규모 투자협약 (2012.07.26)



일본 도쿄 제조업체 투자설명회 및 MOU체결 (2012.07.24)



GFEZ, 순천 선월하이파크단지 투자협약 체결 (2012.07.24)



주한 일본기업 관계자 GFEZ 투자시찰 (2012.07.20)



신임청장 GFEZ 개발현장 방문  
(2012.07.19)



제4대 이희봉 청장님 취임식  
(2012.07.06)



일본기업 투자관계자 GFEZ 방문  
(2012.07.06)



GFEZ,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투자협약 체결  
(2012.07.03)



발행일 2012년 08월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인 이희봉

<http://www.gfez.go.kr>

